

經濟發展政策과 生活環境

崔 哲

(專任講師)

目 次

1. 生活環境의 概念
2. 生活環境水準의 測定과 適正性
3. 生活環境과 經濟開發
4. 韓國生活環境 開發의 現況
5. 生活環境開發政策에 對한 提言

1. 生活環境開發의 概念

生活環境開發과 經濟開發을 比較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先入觀을 가지고 意味를 賦與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첫째로 經濟開發이 貨幣的 單位로 表示된 總計的(aggregate)인 成長을 重要 考慮對象으로 보는데 比해 生活環境開發이란 物量的(physical) 單位를 中心으로 볼려는 傾向이 있다. 둘째로 經濟開發이 經濟的 厚生(economic welfare)에 生活環境開發은 社會的 厚生(social welfare)을 目的函數로 두고 있다고 흔히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다음으로 經濟開發이란 現在의 消費를 抑制하고 未來를 위한 蓄積을 強調하는데 比해서 生活環境開發이란 現在의 消費에 力點을 두고 있다고 보는 見解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意見은 常識的인 觀點의 比較를 羅列한데 불과하고 깊이 있는 理論的 分析의 結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生活環境開發이란 語彙 自體가 가지는 概念上的 모호성을 우선 지적할 수 있으며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의 相關關係에 대해서 누구나 納得할 수 있는 어떠한 分명한 基準이나 理論도 없는 것 같으며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은 補合的인 것이며 두가지 概念 自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包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이 政策이란 말이 붙여질 때 훨씬 具體的인 意味를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經濟開發 政策이나 生活環境開發政策은 어느 特定國家나 社會가 追求하고 있는 實操作的(operational)이고 具體的인 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生活環境(environment for living)은 生産環境(environment for production)과 相對的인

意味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生活環境이란 人間の 日課중 生産活動에 參與하는 時間을 뺀 나머지 時間에 항상 접하는 一切의 環境을 뜻한다. 잠을 자고 食事を 하고 自動車を 타고 出勤을 하며 日課를 마치면 집에 돌아와 休息을 취하던지 公園을 散策하는 등 各者の 趣向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 같은 日課가 되풀이 된다. 바로 이와 같은 單純한 하루의 日課속에 모든 生活環境은 集約되어 있으며 이러한 生活이 便宜롭고 能率的이 되기 위해 現代는 여러가지 文明의 利器를 提供하고 있다. 이와 같은 文明의 利器로서의 生活環境을 生活環境施設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것을 細分한다면 住居施設, 交通通信施設, 供給處理施設(上水道, 下水道, 下水處理, 糞尿處理, 塵芥處理), 慰樂施設(劇場, 公園, 映畫館 等), 文化施設(教育施設, 圖書館, 體育館 等)로 大分할 수 있으며 이상의 施設 하나 하나가 어떻게 連繫關係를 갖고 있느냐의 全體를 하나의 場으로 보아 生活 環境이라 불리워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都市 生活環境이니 農村 生活環境이라 말할 때 施設 하나 하나를 指摘하는 것이 아니라 全體가 가지고 있는 全體環境을 뜻한다. 都市나 農村에 拘碍됨이 없이 生活環境의 共通의 要素들을 發見할 수 있으나 흔히 都市生活環境과 農村 生活環境으로 區分함은 生活的 場으로서 相異한 點이 많기 때문이다. 都市의 生活環境이란 좁은 空間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됨으로써 生活環境의 構成들이 大部分 人工的 構造物인데 比較해서 農村의 生活環境을 自然的 景觀 自體가 많은 部分을 占한다. 따라서 生活環境 開發이라고 할 때 人口가 密集되어 있는 都市를 中心으로 論할 때가 많으며 農村과 都市를 分離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生活環境을 보다 廣範한 意味로 使用되고 있는 경우이다. 生産環境과 生活環境을 包含한 全體 人間環境(human environment)과 同一하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狹義의 生活環境 即, 生産環境에 대한 生活環境의 概念에다가 人間과 自然의 交互作用(man and nature interaction) 過程에서 일어나는 모든 現象을 生活環境에 包含시킴으로써 廣義의 生活環境으로 부르는 경우이다. 生活環境 施設뿐만 아니라 生態系(ecosystem) 속에 일어나는 環境汚染의 問題도 一般的인 生活環境속에 함께 다루고 있다.

세째로, 最廣義의 生活環境의 概念으로 地球上에 存在하는 모든 現象을 하나의 環境으로 보는 見解이다. Milsum의 見解⁽¹⁾를 빌리면 크게 네개의 界로 分類하고 있다. 地理界(geosphere), 生物界(biosphere), 社會界(sociosphere), 技術界(technosphere)가 그것이다. 地理界는 기후의 變化, 降雨, 降雪, 地形의 變化 및 適正한 光線, 溫度, 濕度 等の 環境的 要素를 例로 들 수 있으며, 生物界는 地理界 속에 살고 있는 모든 生物 相互間의 交互作用과 이것과 地理界, 技術界, 社會界와의 適應過程을 말한다. 環境의 變化에 대하여 모든 生物은

(1) J.H. Milsum, "The Technosphere, The Biosphere, The Sociosphere," *EKISTICS* (Vol.27, No. 160, Mar., 1969) pp.171-177

程度的差異는 있을지언정 適應能力(adaptive ability)를 가지고 있으며 長期的으로 競爭을 通해 進化한다. 人間도 역시 生物界의 한 構成員임은 물론이다. 社會界는 人間の 精神的 遺產으로 存在하는 文化라든가 制度를 意味하며 特히 技術界의 變化에 대하여 대단히 敏感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自動車의 發明은 交通法規의 必要性을, 原子폭탄의 發明을 世界 秩序와 戰爭遂行方法까지도 變化를 招來했다. 끝으로 技術界는 純粹하진 應用的이건 간에 人間에 의하여 創案해 낸 頭腦와 힘의 延長이며 이것은 地理界와 社會界는 勿論 生物界에 커다란 影響力을 미치고 있다. 最廣義의 生活環境開發은 人間을 中心으로 地理界, 生物界, 技術界, 社會界에 意味를 부여하고 보다 바람직한 方向으로 環境을 改造할려는 一切의 努力을 뜻할 수 있다.

이상에서 狹義, 廣義, 最廣義의 生活環境의 概念을 살펴보았으나, 이것은 極히 試驗的인 것이며 아직까지도 生活環境이란 概念 自體를 어떻게 把握할 것이냐에 대한 一般的인 同意點에 到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가장 많이 使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狹義와 廣義의 生活環境開發을 中心으로 展開코자 한다.

2. 生活環境開發水準의 測定問題

生活環境開發과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質問을 던질 필요가 있다. 生活環境開發水準을 測定하는 尺度는 무엇이며 우리 나라의 生活環境이 良好하다든가 不良하다는 判斷의 基準을 이루는 合理性의 문제이다.

어떠한 測定方法을 使用하던지 한가지 뚜렷한 目的은 測定을 한다는 것이 바로 政策決定의 基準을 提示하기 때문에⁽²⁾ 生活環境開發政策樹立의 첫 段階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勿論 다른 나라에서도 生活環境開發과 經濟發展을 測定함에 共通的인 誤謬가 있었다면 剔化할 수 없는 것은 어느 意味에서 等閑히 取扱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特히 開發途上의 諸國들이 經濟開發過程에서 犯하고 있는 잘못 중의 하나로서 몇가지 量化할 수 있는 數値의 魔術에 얽매어 많은 量化할 수 없는 側面이 희생을 強要받고 있는 것이다. G.N.P., 輸出額, 1人當 國民所得과 같은 數値가 그것이다. 또한 國家政策이 너무 이와 같은 魔의 數値에 沒頭한 나머지 國家開發의 窮極的 目的까지 歪曲시키는 일이 없지 않다. Etzioni의 말을 빌리면 頻繁한 測定은 產出의 어떠한 側面이 다른 것보다 測定하기 쉽다는 理由 때문에 바로 組織的 努力을 誤導할 수 있으며 高度로 測定하기 쉬운 品目の 過剩生產을 刺戟하고 測定하기 어려운 것을 경시하는 傾向도 없지 않음⁽³⁾을 발견할 수 있다.

(2) C.W. Churchman and Phillburn Ratoosh, *Measurement; Definitions and Theories*, N.Y.; John-Wiley and Sons, Inc., 1959, p.84

(3) A. Etzioni, *Modern Organizations*, N.Y.; Prentice-Hall, 1964, p.9.

가장 많이 利用되어지는 經濟開發의 測度는 여러가지 意味에서 信憑할 수 없으며 大體로 잘못 解釋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의 代表的 例가 바로 1人當 國民所得과 國民總生産이다⁽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生活環境開發은 一般的으로 測定하기 힘들고 (less measurable) 經濟開發은 測定하기 쉬운 (highly measurable) 性格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生活環境開發에 대하여 輕視할 수 있는 커다란 要因이 되어왔다.

一般的으로 生活環境開發은 單一한 測度에 의해 比較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經濟學의 經濟人 (economic man) 的 合理性 基準으로 判斷할 수 없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生活環境開發이 根本的으로 測定할 수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明白한 것은 測定하기가 쉽지 않다는 事實이다. 汚染된 食水を 國民이 마셨다고 할 때 당장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國民健康을 해치고 疾病을 誘發하였을 때 國民全體가 받아야 하는 經濟的 不利益이 얼마인지 正確히 答할 수 없다. 住宅의 不足에서 惹起되는 社會的 問題 내지 生産性에 대한 影響力을 量化하기 極히 힘들다.

따라서 生活環境開發은 客觀的으로 量化하는 測度の 不足과 測定の 어려움 때문에 等閑視되어서는 아니되며 그것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特性을 充分히 考慮해야 할 것이다.

첫째 生活環境開發은 短期間에 大規模 投資를 要하여 投下資本의 懷妊期間이 길 뿐 아니라 利潤率이 一般的으로 낮으므로 因하여 公共投資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公害防止施設과 같이 多數의 不特定人을 對象으로 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 不特定人을 對象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個個人에게 直接的 影響力이 없다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反對로 國民 各者는 生活環境에 대하여 대단히 敏感하며 總計的이고 貨幣的 單位로 表示된 1人當國民所得이나 國民總生産보다 훨씬 直接的 惠澤을 實感케 하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都市에 있어서 上水道 給水事情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經濟 統計 年鑑에 發表되는 1人當國民所得이 올라 가고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直接的이고 實體感을 갖게 하는 特性을 가진다.

세째로 社會的 財貨 (social goods)로서의 性格이다. 大部分의 地理界나 生物界는 特定人에게 所有되지 않으며 人類共通의 所有이다. 河川이나 大氣, 海洋과 같이 個個人의 잘못이 累積되어 結果的으로 全體의 不利益이 招來되며 누구 한 사람에게 責任의 限界를 물을 수 없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Hardin이 提起한 바 있는 生活環境이 가진 共有의 悲劇 (tragedy of the commons)⁽⁵⁾이다. 모든 사람에게 公開된 草地에 可能限 많은 牧畜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當分間은 草地가 支援할 수 있는 力量內에서 調和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限界를 넘어 더 以上 다른 草地를 發見할 수 없을 때 悲劇은 內在해

(4) Stephen Enke, *Economics for Development*, London, 1963, p. 41.

(5) Gane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No. 13, (Dec. 1968) pp. 1243-1248.

있는 것이며 그러한 悲劇이 自然과 人間의 悲劇이 아니라 終局的으로 人間과 人間의 對決로 나아간다면 現實을 想定해 볼 필요가 있다. 河川이나 海洋에 工場廢水나 生活下水를 放流시킨다든가, 空氣속에 毒性 危險性이 있는 排氣가스를 排出시킬 때, 그리고 個人的 自己만의 利益을 追求하는 獨立된 自由人으로 行動할 때, 全體로서 共同社會가 감수해야 하는 累積的 悲劇이 誘發되는 것이다.

· 네째로 生活環境水準의 主觀性이다. 한 社會에서 容納되지 않는 生活環境水準이 다른 社會에서는 充分히 容納되는 水準으로 評價될 수도 있다는 事實이다. 비단 社會에 따라 이러한 主觀的 評價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社會속에서도 個個人은 各己 主觀的 限界水準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이를 客觀化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美國에서는 水洗式 便所가 없고 溫水의 自家供給이 될 수 없는 家屋을 不良住宅이라 定義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 이와 같은 基準을 適用시킨다면 우리 나라 總住宅의 99% 以上이 不良老朽住宅으로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生活環境의 基準은 한 社會의 生活 패턴, 傳統的 價値觀, 經濟的力量 및 重要性에 對한 認識水準과 函數關係를 가진다. 따라서 世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妥當한 生活環境의 바람직한 水準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한 社會內에서도 個人과 階層에 따라 主觀的 判斷에 依存해 왔다.

最近 이러한 生活環境 水準의 主觀的 要素를 克服해 보려는 몇가지 試圖를 찾을 수 있는 바 그 중의 하나가 最低適正生活基準(minimum adequate standard of living)의 概念이다. 適正 生活環境에 대해서 各 社會는 相異한, 때때로 相反되는 基準을 갖고 있다. 한 社會속에서도 한 社會階層과 다른 한 社會階層間에 다르게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누구나 同意할 수 있는 最低의 適正의 生活環境이 存在할 수 있다고 背定的 態度로 接近하는 見解이다.⁽⁶⁾ 특히 現代科學의 發達は 最低適正生活環境基準에 대하여 科學的인 檢證이 可能하게 하였으며 可能한 最低限의 生存的(substantive) 水準을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代表的 例는 Pipping이 體系化시킨 最低適正生活基準이다.⁽⁷⁾ 흔히 말하는 좋은 生活(good life)의 物質的, 環境的 基準을 設定하고 經濟開發은 窮極的으로 이러한 바람직한 生活의 物質的, 環境的 基準을 充足시켜 주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이러한 最低 適正生活環境은 어느 特定 個人이나 集團의 것이 아니라 科學的 研究와 調查를 通하여 客觀的으로 摸索되어야 함을 指摘하였다. 最低適正生活基準은 經濟開發過程에서 資源의 浪費를 防止할 수 있는 手段의 概念으로 有用性을 強調하였다. 例를 들면 最低 適正住居空間, 食料水의 純度, 大氣의 청결, 用水의 量, 에너지 消耗量, 塵芥量 등 年間 調整의 適正回數에 이르기

(6) Richard L. Meier,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Patterns of Living*,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6, p.158.

(7) H.E. Pipping, *Standard of Living: The Concept and its Place in Economics*, Societas Scientiarum Fennica, Helsinki, 1953.

까지 세밀하고 比較的 科學的인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 나아가서 Pipping은 最低適正生活環境이란 經濟開發의 바로 道德的, 社會的 側面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最低適正生活環境基準의 概念이 理想論的 概念化라고 批判하고 있다. 理由로서 適正生活環境이란 것이 根本的으로 主觀的이라는 弱點을 내세워 反論을 提起한다. 適正生活環境이란 無數한 試行錯誤를 거쳐 社會的으로 容納될 수 있는 社會的 同意이며 科學的 客觀性이란 文化的, 社會的으로 支配的 價値와 合致되지 않을 때 아무런 實現性이 없다고 본다. 나아가서 生活環境基準에 대한 人間 欲望의 累增的 期待上昇과 科學發展에 의한 環境變化에 대한 人間의 適應性(adaptability)을 考慮할 때 靜的인 最低適正生活環境이란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絶對的이고 理想的인 最低適正 生活環境에 反論을 가하고 國家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相對論的 現實論을 展開하는 理論이 있다. 適正生活環境이란 한 社會를 支配하는 價値의 領域이며 段階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適正生活環境基準이란 全般的 國民厚生增大를 위한 社會的 指標(social indicator)로서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適正生活環境基準이란 各 國家에 따라 相異할 수 있으며 國家開發政策 樹立을 위한 手段의 指標로서 價値가 있다고 Bauer는 말하고 있다.⁽⁸⁾ 社會的 指標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行動을 取하도록 하고 政策을 採擇하도록 說得하기 위한 手段이며 國家開發過程의 危險信號로서의 役割을 強調한바 있다. 國家發展政策 樹立에 있어서 일단 樹立된 特定目的이 結果的으로 나타난 累積된 缺點이 現在化되어 다시 優先順位가 될 때까지 追求되어지기 常例이다. 따라서 生活環境의 適正性에 관한 基準設定의 필요성은 國家開發政策의 優先 順位와 政策移行을 도와주는 하나의 指標로서 意味를 가진다.

세째로 最近 UN에서 發展시키고 있는 生活指數의 水準(levels of living index)의 概念이다.⁽⁹⁾ 生活水準을 測定하는 일곱 가지 指數에 의해 各 國家의 客觀的이고 綜合的인 生活水準과 社會開發의 程度를 分析하려고 하였다. 勿論 UN이 作成한 生活指數의 概念은 完全히 生活環境만을 對象으로 한 것이 아니고 經濟的인 水準도 考慮하였지만 한가지 特性은 生活環境을 中心으로 社會복지의 水準을 客觀化 시키려는 努力의 一環이었으며, 交通과 通信手段 指數, 都市化指數, 醫療指數와 같은 廣範한 因子들을 經濟的 因子와 同一한 比重으로 取扱하였다. 이러한 UN의 生活指數는 先進國과 後進國 間의 生活環境水準을 比較하고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調和있는 目標를 設定하는 데 有用하게 利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生活 環境 水準을 測定하는데 惹起되는 方法上의 問題點과 生活環境開發政策 樹立에 準據 役割을 하는 適正 生活水準 내지 生活環境開發計劃의 指標 設定과 관련하여

(8) Raymond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6. p.26.

(9) J. Drewnoski and Scott Wolf, "The Level of Living Index," Report No.4,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1968.

現在까지의 論議를 要約하였다.

3. 生活環境開發과 經濟開發

生活環境의 概念에 대한 見解의 差異 및 生活環境 水準을 測定하는 客觀的 單位의 缺如에도 不拘하고 生活環境開發과 經濟開發間의 關係에 대하여 여러 가지 理論들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紹介하는 先經濟開發後社會開發理論, 成長段階理論, 環境主義理論은 여러 가지 理論 중 몇가지 代表的인 것이다.

가. 先經濟開發後社會開發 理論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은 根本的으로 相衡的 關係를 가진다고 보는 見解이다. 特히 生活環境開發을 包含하는 넓은 意味에서의 社會開發과 經濟開發은 同時에 達成될 수 없는 擇一的 關係에 있다고 보며 特히 學者 중에 이것을 主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Letwin은 바로 이와 같은 傾向을 經濟開發에 관한 네가지 誤謬라고 指摘하고 있다. 첫째 製造業은 農業보다 生産的이다. 國家의 貧困을 退治하는 捷徑은 工業化에 있다는 信念이다. 둘째, 보다 많은 資本이 적은 資本보다 좋다. 이 誤謬는 開發途上國家는 資本蓄積만 많이 이루어지면 發展할 수 있다고 보는 見解이다. 셋째로 보다 많은 道路는 적은 道路보다 좋다. 이 誤謬는 經濟開發은 密集된 道路網과 通信網에 特히 社會間接資本의 重要性을 強調한다. 넷째로 急激한 經濟成長이 느린 經濟成長보다 좋다는 것으로 이상 네가지는 經濟開發의 神話이었고, 現在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다.⁽¹⁰⁾ 後進國 經濟開發論者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以上 네가지 誤謬의 根底에 자리잡고 있는 共通된 假定이 있다면 現在의 消費와 未來의 消費는 對立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서 社會開發은 現在의 消費이며 經濟開發을 未來의 멋진 消費를 위해 現在消費者의 犧牲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資本蓄積과 急速한 經濟成長 및 工業化를 위하여 現在의 消費에 속하는 社會開發 및 生活環境開發을 마땅히 犧牲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生活水準의 可能的 極大化와 高度의 經濟成長을 同時에 이룩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반드시 어느 하나의 犧牲 위에 이루어져야 할 宿命的 性格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見解가 옳으나 옳지 않느냐 하는 問題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겠지만 한가지 分明한 것은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擇一的 關係 내지 相互減殺(tade-off)의 態度는 止揚되고 있는 것 같다. Higgins와 같은 經濟學者는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區分이 文獻上 사라져 버릴 날이 틀림없이 來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¹¹⁾ 흔히 社會開發과 經濟開發은 政府의 機構編成(government departmentaliza-

(10) William Letwin, "Four Fallacies about Economic Development" D.E. Novack and R. Leka-chman, ed., *Development and Society*, New York, St. Martin Press, 1964, pp.23-39.

(11) Benjamin Higgins, *Economic Development: Problems, Principles, and Policies* (revised edition) New York, W.W. Norton and Co., Inc., 1968, p.405.

tion)을 위한 理論的 架空物에 不過한 概念이라고 하였다.

先後國家를 莫論하고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概念이 一元化되어 가는 傾向이 있으며 現實이 이것을 不可避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先進國의 經濟開發은 처음부터 社會開發의 內容이 大部分이었으며 開發途上國家들은 漸次 經濟開發의 合理性만으로 解決될 수 없는 여러 가지 社會問題가 簇出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이 提携하는 움직임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急激한 都市化 現象에서 일어나는 都市問題, 農村과 都市 隔差, 工業化에 따른 環境一般의 不備 내지 惡化는 從來의 經濟開發 위주의 指標들은 根本的인 再檢討를 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先經濟開發後社會開發의 擇一的選好理論을 벗어나서 社會經濟開發 또는 國家開發이란 次元에서 再調整되어야 할 것이며, 一體化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成長段階 理論

成長段階理論이란 語彙가 適切한 表現인지는 疑問이지만 前述한 先經濟開發後社會開發模型과 大體로 見解를 같이 하면서도 先經濟開發後社會開發 模型을 具體化시켜 經濟開發과 社會開發과의 優先順位를 體系的으로 國家開發政策의 發展的 趨移와 관련하여 代案을 提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差異가 있다.

한 예를 들면 Friedmann은 工業化의 段階를 前工業化 段階, 過渡的 段階, 工業化 段階 脫工業化 段階로 區分하고 各 段階에 相應하는 政策의 優先順位가 달라질 수 있으며 前工業化 段階는 政策的 優先順位가 經濟開發의 豫備與件을 造成하는데 있으며, 過渡的 段階에서는 工業化에로의 轉移를 위한 空間組織의 編成을 促求해야 하며, 工業化 段階에서는 不振地域 再開發 및 市場組織에 相應한 空間의 再整備가 다루어져야 하며, 脫工業化 段階에서는 都市再開發, 大都市圈의 流通秩序와 交通體系의 整備 및 空地의 保存과 環境의 快適性에 政策的 優先順位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²⁾ 따라서 生活環境開發의 問題는 前工業化 段階로부터 脫工業化 段階로 移行됨에 따라 漸進的으로 優先順位가 주어져야 하며 이것은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調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成長段階論 역시 國家開發政策의 展開過程에 있어서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 및 地域開發간의 相衡의 關係를 隱然중 認定하고 있으며 따라서 本格的 工業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開發途上國家의 生活環境 問題는 經濟開發에 앞서 政策的 優先順位가 주어질 수 없다고 보는 見解에 속한다. 果然 이러한 見解가 妥當한 것인지에 대하여 疑問이 없지 않으나 一面 首肯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다음에 環境主義者들은 이러한 見解에 根本的 誤謬를 指摘하고 있다.

다. 環境主義的 理論

人類가 滅亡할 날이 멀지 않다고 보며 最後 審判의 날을 豫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特別 環境汚染으로 인한 人間의 適應能力의 限界性과 生態系(ecosystem)의 異變, 自然과 人間

(12) John Friedman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5, p.7.

의 不均衡은 바로 人間社會 自體에 終之符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環境宿命論(environmental fatalism)이 그것이며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이에 意見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環境論者(environmentalist)라고 부르는 것 같다.

環境論者들은 環境의 保全이야말로 國家政策의 基調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世界人類 共同의 唯一한 生存을 위한 價値라고 말하고 있다.⁽¹³⁾ 人間 生存과 直結되는 大氣와 水質의 汚染, 密集된 生活空間 및 現代機械文明이 낳은 精神病的 要素 科學의 發達로 인한 平均壽命의 延長, 그에 따른 人口의 팽창, 나아가서 人口增加와 自然의 人間扶養 能力의 限界點의 도달, 醫藥의 發達에 앞서 疾病의 累積의 增大와 새로운 疾病의 發生, 豫測을 不許하는 生態系의 突然變異等 經濟의 合理性만으로 理解할 수도 解決될 수도 없는 現象들이 나타남에 따라 모든 것에 優先하여 環境開發에 置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一聯의 움직임이다. 環境論者들은 問題解決의 關鍵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生活環境의 開發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都市의 生活環境改善은 國家政策上 最優順位가 주어져야 하며 急激한 都市化를 겪고 있는 開發途上國家는 注意 깊은 都市生活環境開發을 推進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을 強調하고 있다.⁽¹⁴⁾

이상에서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을 相互關係에 관한 몇 가지 見解를 살펴 보았으나 시원한 答辨을 얻지 못하였으며 얻을 수도 없는 課題인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共通點이 있다면 生活環境開發과 經濟開發의 窮極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副次的 目的이며 調和있는 開發이 바람직하다는 結論이다.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이 다 같이 國民을 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한 手段들이라면 經濟開發이 가진 總計的 成長目標를 生活環境開發을 통해 具體化시키고 指標化 시킴으로써 經濟開發이 國民의 日常生活에 便益을 最大化 할 수 있도록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短期的으로 볼 때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은 擇一的으로 어느 하나의 犧牲위에 어느 하나가 이루어져야 할 性格을 가진 것 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 두가지는 根本적으로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短期的으로 볼 때 經濟開發은 生活環境 問題와는 相衡的인 것 같으며 生活環境의 汚染위에 總計的 經濟成長은 極大化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人間 生産力의 低下와 生活環境으로부터 累積的 被害가 그간 이룩해 놓은 經濟開發을 증가할 수도 있다. 生活環境開發에 대한 現在의 支出은 未來의 보다 많은 支出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 經濟開發과 生活環境開發과의 優先順位는 時間選擇의 選好로 歸着되며 어떠한 길을 擇할 것인가는 價値觀의 問題로 要約된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生活環境開發의 水準과 問題點들을 살펴보는 것은 國家開發政策樹立에 參考가 될 것이다.

(13) Rene Dubos, "The Crisis of Man in this Environment", *EKISTICS*, Vol. 27, No. 160, (Mar., 1969,) pp. 151-154.

(14) United Nations, *Urbaniza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Planning* (International Social Development Review, No. 1), 1968, pp. 3-6.

4. 韓國의 生活環境水準의 現況

우리 나라 生活環境開發 現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統計의 利用 可能하였던 다음 몇 가지 生活環境施設과 環境汚染에 局限시켜 살펴 보았다.

다음 <表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62年을 基準으로 해서 볼 때 人口는 19% 增加했는데 比해 生活環境施設規模는 몇배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增加率만으로 우리나라 生活環境 開發이 활발하였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基準年度의 施設規模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比較하면 너무나 低位에 있었으므로 1970年 現在의 生活環境水準과를 增加率로 比較함은 現實을 歪曲시킬 가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生活環境開發의 現水準程度를 客觀的으로 볼 수 있는 方法은 오히려 1人當 生活環境施設規模가 될 것이다.

<表 1> 重要生活環境施設現況

年度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增加率									
人口(全國)	26,278 (100)	27,490 (105)	28,181 (107)	28,647 (109)	29,208 (111)	29,471 (112)	29,954 (114)	30,763 (117)	31,317 (119)
都市人口	7,926 (100)	8,733 (110)	9,073 (114)	9,267 (117)	9,810 (124)	10,158 (128)	10,853 (137)	11,636 (147)	12,955 (163)
上水道(千)MT/D	622 (100)	630 (101)	660 (106)	750 (112)	1,140 (184)	1,226 (197)	1,606 (262)	1,870 (300)	2,166 (349)
下水道(延長) km	—	—	—	—	1,670	—	—	1,850	1,950
道路延長全國km(都市)	27,169	28,056	28,144	28,144	34,476	34,799	34,947	37,168 (5,558)	40,244
鋪裝(都市)	1,275 (100)	1,442 (113)	1,558 (122)	1,627 (126)	1,934 (150)	2,092 (164)	2,200 (173)	2,970 (233)	3,864 (303)
塵芥量(千Ton)(都市)	—	2,502	2,851	3,086	3,444	4,379	3,816	4,219 (4,118)	4,690
電話臺數(都市)	169,157 (100)	190,961 (113)	220,759 (130)	247,447 (145)	313,331 (178)	387,750 (228)	451,529 (267)	511,758 (301)	552,474 (323)
國民學校教室數	54,772 (100)	56,059 (104)	57,673 (106)	62,414 (114)	61,711 (112)	67,390 (123)	73,726 (135)	79,901 (146)	85,500 (156)
中學校教室數	9,319 (100)	9,223 (104)	10,277 (110)	10,812 (116)	11,389 (122)	13,533 (145)	14,695 (158)	17,551 (188)	21,126 (198)
住宅(千戶)	3,624 (100)	3,720 (103)	3,815 (105)	3,912 (108)	4,069 (112)	4,181 (115)	4,267 (118)	4,362 (120)	4,443 (123)
電化率	265,858 (100)	292,176 (110)	357,487 (135)		501,538 (189)	571,842 (210)	655,839 (247)	827,397 (310)	1009,041 (380)

첫째 住宅問題로서 不良住宅을 除外하더라도 都市의 住宅不足率은 48.5%에 이르고 있으며 全國的으로 보아 22.2%가 된다. 이것은 先進諸國은 勿論 他開發途上國家와 比較해서 低位에 屬하며 量的問題보다도 質的問題를 考慮할 때 比較를 할 수 없을 정도로 惡化一路에 있다. 上水道 普及率은 全國的으로 35.5%이며 都市에서는 73%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은 共同水道를 포함해서 給水 人口를 基準으로 算定된 것으로 實際 給水栓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훨씬 낮은 率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給水量으로 보더라도 現在 140/日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것은 西歐諸國에 比較하면 約 30% 정도 밖에 供給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下水道의 普及率은 西歐의 衛生下水道는 全無하며 雨水와 一般下水를 同時에 處理하는 下水路만이 있을 뿐 이것마저도 部分的으로 設備되어 여름에는 下水口가 부패하고 雨期에는 汚이 氾濫, 住宅에까지 침투하는 것이 大部分이다. 다음은 Feace Corps 로 있었던 한外國人이 본 우리 나라의 下水道 實情이다. (15) 내가 살던 집에는 길옆 下水路가 석달 동안 세번이나 무너져 내려 그 때마다 새로 補修했다. 복개 안한 下水道에는 여름에는 부패의 温床이 되고 어른이나 아이가 빠질 危險이 있으며 實際 1971年 11月에 한 사람이 死亡했다. 暴雨 處理와 下水集渠가 무시되고 있으며 그것마저 一部分 地域의 特惠物이다.”

道路率도 다른 나라에 比較하면 대단히 낮다. 特히 都市에서는 5.3% 밖에 되지 않으며 英國이나 美國의 경우 20% 線을 維持하는 것이 理想이다. 더욱 國道の 舗裝은 平均 23.7로 다른 나라의 경우 大部分 90% 以上을 上廻하여 우리 나라 都市가 겨우 27.9%이나 先進國의 경우 거의 95%線을 絶持한다.

電話臺數는 全國的으로 120 名當 1臺로 되어 있으나 가까운 日本이 6人當 1臺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낮은 率을 보이며 都市에서도 30人當 1臺에 不過하다. 電氣의 惠澤을 받는 人口는 都市가 84%, 農村이 27%로서 가장 基本的인 問題조차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塵芥와 糞尿를 살펴보면 1人當 800g/日 으로 우리 나라 全體的으로 4,690 千톤의 塵芥를 배출하며 原始的인 埋立方法에 의하여 處理하고 있다. 先進國家는 平均 2,000g/日의 塵芥量을 排出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보다 덜 不便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施設과 裝備의 不足이 큰 原因이다. 糞尿는 收去하여 農村地域에 一部 還元하고 一部는 消化 處理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一部 海岸都市는 沿岸 海域에 投棄하는 方法도 쓰고 있어 環境汚染의 問題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나라 唯一의 下水終末 處理施設이 청계천 下流에 建設중에 있으나 아직 完成을 보기에 相當한 時間을 要하는 實情으로 塵芥, 糞尿處理施設은 과히 無防備 狀態이며 600萬 人口의 食水源을 危脅하고 있다.

다음으로 環境汚染에 대한 全國的인 調查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現在까지 밝혀진 바로는 大都市 地域에서의 大氣汚染과 工業地域의 工場煤煙에 의한 汚染이 뚜렷하며 서울시 周邊道路의 濃度는 乙支路 入口가 平均 38.7ppm 으로 New York 의 10.5ppm 보다 3倍 이상으로 나타나고 서울시의 降下 塵量은 乙支路入口가 76.6Ton/km²/month 로 東京의 36Ton 보다 2倍나 높은 實情이다. (16) CO 이외에도 SO₂, SO₃의 汚染度가 增加하고 있다.

(15) Jeffery H. May, The Provision of Public Utilities in a Rapidly Urbanization Stiuation, (都市問題, 1971, 12), p. 60.

(16) 都市行政協會, 都市公害; 理論과 實際, 都市行政資料 IX, 1969, pp. 14~19

水質汚染은 水系別로 보면 漢江流域의 忠肥, 서울都市 廢水, 永登浦工場 廢水, 낙동강의 대구시 금호강, 釜山市內 河川 및 港灣과 馬山 鎭海의 工場廢水, 울산工業團地의 工場廢水, 錦江下流의 長項계련소, 群山市內 工場廢水, 麗水 光陽灣一帶의 湖南精油工場廢水, 榮山江流域의 羅州肥料, 仁川의 工場廢水, 江原道地域의 炭鑛廢水 및 炭粉塵芥를 重點的으 들 수 있다. (17)

다음으로 海洋汚染으로 울산항, 麗水港(三一面)一帶의 유조선에 의한 油類汚染(oil pollution) 및 仁川港, 馬山港의 工場廢水로 인한 海洋汚染이 漸次 擴大되고 있으며 將次浦項綜合製鐵이 完工될 경우 나타날 工場廢水 汚染, 동래 原子力發電所가 가동될 경우 核汚染(nuclear pollution) 및 熱汚染(thermal pollution)이 豫測된다. 끝으로 騒音公害를 무시할 수 없다. 서울의 金浦空港 一帶에 이미 宅地化된 地域의 騒音이 80~100 db 水準까지 되고 있으며 具體的 資料가 없으나 釜山의 水營空港, 대구의 東村飛行場, 光州 松汀間의 飛行場이 騒音公害의 對象이 되고 있다.

5. 우리 나라 生活環境政策의 課題

1. 生活環境施設投資의 不振

第1次, 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通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生活環境施設에 대한 投資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名目上의 投資에 그친 감이 든다. 第1次, 2次 5 個年計劃에서 生活環境施設은 住宅部門을 除外하고 計劃書 속에 빠져 있었다. 社會間接資本部門 중 道路, 通信, 用水開發에 대한 重點的 投資가 이루어졌으나 大部分의 事業들이 生活環境의 造成보다는 오히려 生産環境의 建設에 置重하였으며 道路만 하더라도 產業道路를 中心으로 建設하였다. 用水 역시 生活用水보다는 工業用水에 注力함으로써 生活環境施設投資에 重點的 投資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生活環境施設 投資는 地方政府의 投資財源에 依存하였으며 中央政府의 役割이란 무시할 정도였다 할 수 있다. 서울特別市를 包含하여 1970年 地方財政規模는 1,074 億원이었으나 中央政府는 4,327 億원으로 4 倍以上이 된다. 따라서 地方政府가 生活環境施設部門에 投資할 수 있었던 全體額이 微少하였을 뿐 아니라 中央政府의 支援이 전혀 缺如되어 있었기 때문에 生活環境施設의 積極的 開發이 不可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 將來에 우려가 되는 것은 中央政府의 投資財源 增加와 地方政府의 投資財源 增加와의 間隔이 漸次 擴大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歲入部門중 稅收入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中央政府의 內國稅收入은 國民의 所得이 向上되고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累進的으로 增大하는 데 비해 地方政府 收入의 큰 比重을 차지하는 地方稅는 國民所得의 向上에도 不拘하고 非彈力

(17) 元鍾熱, 公害로서의 水質汚染一般, 유네스코協會, 公害防止세미나, Mimeo. p.41.

的 成長을 한다. 國稅중 內國稅 伸張率이 1962年을 基準으로 1970年까지 13.3倍 增大하였는데 비해 地方稅는 5.6倍 밖에 成長하지 못하였음을 볼 때 生活環境施設 開發을 위한 中央政府의 積極의 參與없이 現在와 같이 地方政府에만 一任하는 것은 生活環境施設의 活潑한 開發을 現實으로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 現在와 같은 生活環境施設 投資로서는 既存의 生活環境施設 水準조차 維持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人口 增加에 따른 새로운 生活環境施設 支援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生活環境施設에 대한 國民의 期待 上昇은 單純한 人口 增加率에 相應하는 生活環境施設 投資 增大만으로서도 解決되기 힘든다. 한 그러므로 增加, 生活環境基準의 期待 上昇을 고려하여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積極인 生活環境施設 投資가 要請된다.

2. 生活環境施設의 都市와 農村의 隔差

都市의 보잘것없는 生活環境施設이나 農村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都市와 農村의 所得隔差보다 生活環境施設의 隔差는 더욱 크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農村 家口중 27%만이 電氣의 惠澤을 받고 있는데 비해 都市는 84%가 電氣가 들어가고 있다. 都市民중 나머지 20%가 아직도 都市內에 살고 있으면서 電氣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上水道 普及狀態는 都市의 경우 73%가 給水 人口인데 비해 農村에 대한 자세한 統計의 利用이 不可能하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農村의 生活用水는 몇 百년 동안 하나도 變換 없는 우물 내지 自然流下水에 依存하고 있다. 이것마저 最近에는 農藥의 利用이나 河川 汚染 등으로 相當한 汚染이 일어나고 있어 一部 간이상수도를 建設하고 있으나 거의 보잘것 없는 實情이다. 農村의 경우 감히 下水道는 생각도 할 수 없는 形便이며 塵芥 및 糞尿處理는 아직 原始的 自家處理狀態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最近 農村에도 相當한 通信施設이 普及 擴張되고 있으나 都市는 30名當 1臺인데 비해 農村은 130名當 1臺의 電話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마저 農民들이 實際 利用可能한 近接性을 갖지 못하고 있다. 統計上 都市住宅不足率은 46%에 이르고 農村은 不足住宅率이 5%未滿으로 發表되고 있으나 이것을 農村住宅이 반드시 生活環境으로서 適合한 것이냐에 대한 質的 側面에서 볼 때 깊은 配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都市 生活環境과 農村 生活環境간의 隔差에 대한 몇 가지 例였으나 其他 文化敎育 施設, 衛生施設을 比較할 때 더욱 심한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最近 새마을 가꾸기 運動의 一環으로 推進되고 있는 農漁村 電化事業, 農村의 農路開發, 農村 취락構造改善 및 農村 지붕 改良事業을 通하여 一大 革新을 시도하고 있음은 都市와 農村간의 生活環境施設隔差를 줄인다는 意味뿐만 아니라 放置되다 싶이 되었던 全般的인 生活環境의 水準을 向上시키는 契機를 이룰 것 같다.

都市와 農村의 隔差 뿐만 아니라 都市地域중에서도 大都市와 小都市 間に 비슷한 隔差現象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農村과 都市, 大都市와 中小都市의 生活環境施設隔差가 存在하는 한 過大都市化 現狀은 不可避할 것이며, 地域隔差의 問題는 解決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都市와 農村의 均衡있는 發展 및 隔差 解消를 위하여 全國的인 生活環境施設의 平準化에 戰略的 目標을 設定하고 있음¹⁸⁾은 우리나라에 많은 教訓을 주고 있다.

3. 生活環境施設의 不均衡의 開發

흔히 市長이 更新될 때마다 下水道 市長이니 上水道市長이니 舖裝市長이니 하는 別名이 붙게 마련이다. 그것은 市長의 在任期間동안 한가한 施設投資에만 集中하고 다른 施設을 度外視하는 傾向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한 都市에서는 水道물은 남아 돌아가는데 自動車 한대만 지나가도 먼지가 뽀얗게 나는데 비해 道路가 시원하게 뚫려 한결 깨끗해 보이는데 住宅에 들어가 보면 水道물이 나오지 않는 都市도 있다. 이것은 不均衡의 生活環境 投資에 대한 한 例이며 地方自治團體의 責任者가 自己의 業績을 나타내기 위한 可視的이고 重點的 投資 내지 偏重된 開發에서 오는 結果이다. 1960年代의 生活環境施設開發을 한 마다로 表現한다면 美國의 西部開拓時代를 방불케 하는 外延的 팽창과 都市施設의 物量的 擴大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生活環境施設間의 均衡있는 開發과 可視的인 것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環境施設에 보다 重點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最近 內務部에서 構想하고 있는 市民生活環境施設 基準과 計劃은 이상과 같은 矛盾을 어느 程度 止揚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生活環境開發에 대한 長期的 計劃과 投資의 優先 順位를 빨리 樹立하고 外延的 擴大뿐만 아니라 內部的 充實과 日常生活와 聯關되는 一切의 活動에 대한 安全하고 快適하고 便利하며 能率的인 生活環境의 開發이 이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中央政府의 支援體制 缺如

Weidenbaum 教授는 生活環境開發은 國家政策에 있어서 選好性的 問題가 아니라 하나의 命題로서 받아 들여져야 하며 生活環境問題는 이미 中央과 地方과의 投資財源配分에 대한 行政技術上的 限界를 넘어서서 國家 全體의 課題로 解決되어야 한다¹⁹⁾고 말하였다. 生活環境開發에 대해서 地方政府에 一任할 것이 아니라 中央政府도 責任을 分擔할 時期가 우리나라에도 到來한 것 같다. 地方政府의 自體財源으로 서는 이미 限界點에 온 것 같으며 中央政府가 直接 間接的으로 生活環境問題에 대하여 關與를 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現在까지 中央政府는 生産環境施設에 集中的 投資를 해 왔으나 地方

18) HUD International, Information Series 12, Oct. 18, 1971, HUD, USA. pp.3-4.

19) Murray L. Weidenbaum, "Federal Resources and Urban Needs" *Planning for Nation of Cities*, ed., S.B. Warner Jr.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66, pp.61-78.

政府 單獨으로 解決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投資를 要하거나 여러 地方行政區域에 걸치는 廣域의 生活環境施設의 開發에는 中央政府가 先導的 役割을 해야 할 것이다. 廣域上水道開發 工業用水開發과 生活用水開發의 調整, 河川, 水系別 水質 汚染防止 投資, 住宅部門에 대한 보다 많은 資源의 支援等 廣範한 領域에 걸쳐 介入을 해야 할 것이다. 美國이 1971년에 環境保護廳(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新設하였고 英國은 環境省(Department of Environment)을 新設하였으며, 프랑스가 生活環境을 管掌하는 서비스 및 住宅省(Ministry for Service and Housing)을 再整備 強化함으로써 生活環境問題에 對하여 中央政府의 支援 態勢를 갖추었으며 國家財源의 보다 많은 部分이 生活環境施設에 投入되고 있다는 事實을 銘心할 필요가 있다.

5. 環境汚染防止對策의 未備

環境汚染의 問題는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大部分과 一部 工業地域을 除外하고는 局地的 性格을 띠고 있으나 이것이 漸次 全國的으로 蔓然되어 갈 것임에는 틀림없다. 1971년에 公害 防止法을 改正하여 그 範圍와 規制面에서 많이 強化되었다. 그러나 環境汚染의 問題는 훌륭한 法만으로 解決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어떻게 運用하고 問題 解決에 얼마나 貢獻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法制의 補充改正도 重要하지만 環境汚染에 대한 情報體系가 整備되어 있지 못하고 警告的機能(monitoring function)이 뒤따라 가지 못할 때 死文化될 것이다. 그러나 環境汚染에 대한 情報體系의 整備와 警告的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研究, 調査에 相當한 投資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効果는 내지 못하겠지만 長期的인 眼目에서 環境汚染에 대처할 能力을 培養해야 할 것이다. 現在 局地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環境汚染이 어떻게 波及되고 있는지 그것이 生態系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 科學的 知識을 蓄積 시켜야 할 것이다. 環境汚染問題는 政府의 支援도 重要하지만 終局的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個人의 行動이고 認知(perception)이다. 따라서 環境汚染에 대하여 體系的인 教育을 通하여 個人이 가진 汚染에 對한 價値觀을 確立해야 하며 價値觀의 變化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環境汚染에 대한 內容을 教科課程속에 포함시킨다가 市民의 積極的 參與를 誘導함으로써 環境汚染의 費用이 결국 自己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現代 文明利器를 選擇的 利用하는 현명함을 배워야 할 것이며 環境汚染에서 惹起되는 限界費用을 重要한 變數로 모든 政策決定過程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討 論 要 旨

司 會 : 朱 源

討論參加者 : 구영록, 김운태, 김안제, 남재희, 노용희, 박동서, 변형운, 서원우,
안해균, 유 훈, 윤정섭, 이계행, 이문영, 장위돈, 주 원, 주종원,
최각규, 최 철, 탁희준, 한승수, 한완상, 한진희, 한홍수, 황갑손.

司會(朱 源) : 崔교수로 부터 Broad하게 여러 가지 理論과 提案 말씀을 들었습니다. 參席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이러한 理論을 檢討해 주시고 討論을 提起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희 : 토론의 편의를 위해서 崔선생님 말씀에 몇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生産은 無條件 善이라는데 對한 現在의 環境論者들의 見解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自然은 人間에게 奉仕하기 爲해서 存在하고 自然資源은 無限하다는 見地에서 그러한 見解가 나오고 있으나 그러한 假定이 가능할까 하는 點입니다. 둘째는 國際分業上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點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어딜 가나 工業立國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自然을 파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保存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比較해서 어느 쪽이 더 앞으로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형운 : 發表者의 글에 生活環境을 具體化시키고 指標化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意味 하는지요?

최 철 : 環境開發을 화폐적 terminology로 表示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住宅率의 %를 얼마로 올리겠다 혹은 上水道 給水人口를 몇 %로 올리겠다 하는 것을 具體化하고 indicator로 表示한다는 意味입니다.

주 원 : 그러나 indicator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理論的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우 : 저는 이 分野에 門外漢입니다만 外國에서는 許容의 原則이니 最適의 原則이니 하는 理論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原則이란 經濟發展水準이나 技術發達 程度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乙支路 公害가 日本의 10배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을 우리 나라에서 견디어 내는 水準이라면 別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주 원 : 그러므로 外國의 경우도 minimum과 maximum을 定해 놓고 그 限度를 넘으면 法을 發動하는 것 같습니다.

노용희 : 저는 意見を 달리 합니다. 勿論 公害란 自覺이 前提되어 문제 되는 것이지만 韓國 農藥의 水銀量은 日本의 3배 입니다. 그런데 政府는 우리 水準에서는 참아라 하는 거지요.

서원우 :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自己가 自覺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政府가 最
少限의 study를 하여 이 以下는 된다 안된다 하는 役割을 해야할 것입니다.

변형윤 : 저는 이 問題는 한국의 立場에서 空害 汚染에 對한 어느 水準이 定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社會開發과 生活環境 開發이 相互 補
完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있어서 약간 見解를 달리 합니다. 經濟
開發과 生活環境을 같은 比重을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원 : 격차의 문제를 어디에다 그 standard를 두느냐, 結局 격차의 문제라 하는 것은
조그마한 한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不充分하거나 좋지 않은 點이 共通된 人間社會, 國民社
會, 民族社會 等の 全體規模에 影響을 준다는 것이며 이를 全世界的으로 볼때 한 지점의 問
題가 人類 全體의 永遠한 發展에 障礙가 된다는 等の standard를 定해야겠다는 것입니다.
來年「스톡홀름」會議에서 公害宣言이 採擇될 準備가 進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
다 만 여기에서 共通된 問題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바다의 오염이며 이 바다의 오염은 한 나
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나라로 봐서는 한 지역, 全世界로 보아서는 한 나라로서의 共
通問題, 都市로서의 共通問題를 따져서 standard를 規定해 나가야 합니다. maximum index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다시 共通된 部分을 attach하는 것이 各國이 追求하고자 하는 方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各國이 法으로 制定한 maximum level이나 minimum level이 各國別로
다름을 볼 때 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各國의 實情에 비추어 線이 그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意見입니다.

최각규 : 崔哲선생님의 發表內容과 盧교수님께서 말씀하신데 對한 몇 가지 느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崔선생님께서 經濟發展과 生活環境關係를 結論的으로 相互補完的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政策決定 乃至는 dicision making과 관련시켜 본다면 兩
者の 關係는 여러 가지로 關聯시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발전이다
하는 目標로 부터 演繹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關係는 어떤 priority의 關係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特히 어떤 對策을 세우고 措置를 하고 政策을 세우는데 뒷받침 하기 爲
한 제한된 재원의 配分過程에서 國家政策과 關聯시켜 볼 때는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에 관계
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問題와 關聯하여 盧교수님께서 말씀하신 生産은 善인가 하는
문제로서, 제한된 재원의 配分過程에서의 우선순위의 關係로서 2次五個年計劃 期間 동안에
공업화 과정에 치중한 나머지 生活環境에 對한 投資가 적었다는 것은 틀림 없으며 또한 環境
改善의 문제를 國家나 個人의 立場에서 生産이나 所得과 區分해서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經濟開發이나 生活環境은 장기적인 견지와 短期的인 측면에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盧교수님께서 말씀하신 生産은 善인가의 문제는 결국 제가 보기에는 生産은 相對的
인 善이지 절대적인 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 철 :제가 生活環境과 經濟開發에 對한 것을 모호하게 結論을 내렸읍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經濟開發의 速度를 그대로 維持시키면서 生活環境 部分을 現在 國家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方向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경제개발 계획은 그만두고 생활환경만 개발하자는 意見은 아닙니다. 邊학장님께서 경제개발과 생활환경이 단기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不可避하나 長期的으로 균형 상태만 이루면 된다고 하셨는데 生活環境 問題는 短期的인 不均衡이 長期化 할 수 있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변형윤 :經濟發展과 生活環境을 똑같이 놓고 보는 것이 理想의이겠지만 現實은 그렇지를 못함으로 結果를 봐서 잘못 되었다면 研究해서 交互的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結局은 兩者가 어느 點에 가서는 調和가 되고 擴大되어 나가야지 그냥 經濟開發만 자꾸 내세울 것이 아니라 優先順位가 그때 그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용희 :崔次官補님 말씀하고 崔先生任 말씀은 補完關係에 對한 意見인데 지금 邊학장님 말씀중에, 어떻게 開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力點을 두게 되고, 生産이 相對的인 點이라고 하고 그뒤에 짐은 그림자가 따르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했지만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볼 必要가 있지 않나 봅니다.

변형윤 :그런 點은 原來 저도 같은 立場입니다만 실지 結果的으로 봐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는 늦지 않으니깐 生活環境 쪽으로 가야지 經濟開發 쪽으로만 자꾸 가다 보면 곤란 하다는 것을 強調 하기 爲해서 얘기한 거지요. 그런데 왜 價値判斷의 問題를 科學的領域이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生産이 좋으나 나쁘나 하는 것은 觀念的의이요. 문제는 生産이 必要條件이나 아니냐 할 때 저는 必要條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必要 및 充分條件은 못되도 生産이 안되어서는 아무 것도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必要 條件이라고 봅니다.

주 원 :生産만이 오직 善이나 그런 意味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철선생님과 邊학장님 말씀은 結局 行政府에서 現實的으로 다룰 때에 가장 문제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政府가 다루어야될 豫防의 措處는 勿論 必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恒常 priority 첫째로 나가야 하고 投資에 依한 priority를 가지고 이 問題가 解決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priority 문제를 다룰 때는 現時點만 볼 것이 아니라 現時點을 中心으로 交互的으로 다루어 보자는 것이고 우리가 실지로 經濟를 發展시킨다고 볼 때 經濟政策을 展開해 나갈 때에는 그때 그때 어디다 力點을 두느냐의 問題는 投資의 priority 中心으로서 解決하는 수 밖에 없겠고 그 解決되는 문제가 基本的인 예방 조치는 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그때 그때 손을 써서 나간다는 아까 崔先生께서 말씀하신 相互補完的인 方向이 結果的으로는 政策樹立에 있어서도 不可缺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정섭 :生活環境 施設이 改善됨으로서 直接的으로 우리 生命을 維持할 수 있다는 것은

産業革命 當時의 例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경제학자 中心으로된 研究그룹이 연구한 結果를 보면 將來 2100年代까지 世界的으로 본 成長의 限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그라프로 제시, 대략 2025년경에는 모든 것이 pick를 이룬다고 했는데 工業化 과정이 急進的으로 上昇되면서 우리들 生物體의 가장 重要한 生命이 희생을 當하면서까지 甘受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勿論 우리가 잘살기 爲한 經濟開發로 因해서 오는 工場 폐수 처리문제, 대기오염도 甘受해야겠지만 우리가 成長過程에서 아울러 해야 될 것은 역시 좀더 살기 좋은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영 : 저의 단적인 結論은 生活環境에 關한 強調가 政策構造에 認識되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3가지 理由를 提示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遺産中에서 커다란 것의 하나인 東洋 文明 속에서 살아 왔는데 東洋 文明은 人間과 自然은 가혹하게 分離하지 않고 融和되어서 살아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이고 이러한 것이 必要하고 쫓아 가려고 하는 것이 이른바 青年文化의 精神의 하나이기도 한 것이 事實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經濟成長, 이른바 合理主義를 내세워 봤자 必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全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體制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 文明이 그것을 拒否한다는 것이 첫째 理由이고, 둘째는 조금 長期的인 것인데 우리가 文明 속에서 사는 것 보다는 自然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오래인데 韓國인의 경우를 보면 좁은 自然 속에서 살아왔고 特히 韓國人 生理 속에는 自然을 아름답게하고 거기에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시할수 없는, 반드시 認識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韓國인이 自然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았다, 韓國은 아름다운 나라다, 朝鮮이다 等等은 그저 無意味한 것이 아니고 國家政策을 세우는데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點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짧게는 歷史 속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의 歷史가 인간을 마구 抑壓한 해가지고 近代化로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탈피하고 있는 歷史 속에서 살아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文明 國家라는 것을 몇몇히 認識하고 一部 經濟學者들이 내세우는 바에 關心을 두는 것 보다는 우리의 全體的인 것을 文明, 自然歷史的인 眼目에서 評價 開發하고 또 이것을 開發시키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自然의 아름다움 때문에 世界的 健康을 깨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農村을 發展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원우 : 저는 처음부터 崔先生께서 指摘하시다 싶이 生活環境 概念 自體가 막연한 것 같고 어떤때 보면 自然의 변영이라는 點에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또 정신적인 人間회복이라는 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원 : 이 문제가 大體로 國家政策이라 하나까 여러 先生님께서 提起를 하실 때도 그 가운데는 순수한 physical한 면인 경제발전, 정신적인 면등이 모두 한군데 모여 들면서 국가정

책이라는 것이 現實化되어 결정될테니까 이런 것이 綜合해 보면 우리 나라의 생활환경을 中心으로한 國家政策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結論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황갑순 :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저는 다만 一線의 行政 責任者로서 여러 가지 느꼈던 일을 곁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生活環境에 關한 문제가 논의 된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都市集中에 따른 生活水準의 高度化 現象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崔教授님께서 이點에 發表의 테마를 잡으신 것 같은데 딱 뜻깊고 적절한 시기에 거론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제발전과 환경오염 문제를 어느 것에 priority를 두느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이 시점에서는 邊학장님 말씀대로 經濟發展에 置重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工業發展 때문에 生命의 위협을 느껴도 참아 내야 할 것인가는 2次的으로 생각할 문제인 바, 工業都市를 分散하면 特惠를 준다는 政府의 發表가 環境汚染에 對한 고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학계에 계신 여러 先生님들께서 研究, 發表 해주셔야 할 것은, 경제개발은 개발대로. 한없이 밀고 나가면서 都市集中에서 오는 오염의 limit를 定해서 行政措置로서 分散시켜야 하는 문제를 論議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각규 : 너무 지나친 表現일지 모르나 우리 나라에서 얘기 되고 있는 生活環境이 外國으로 부터 直接 수입해 온데서 오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生活環境施設이다, 人間環境이다等 現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개념이던지 간에 생활환경 개선이다 하면 대기오염이다, 몇개 工場에서 일어나는 폐기物 때문에 오는 문제등이 가장 中心的인 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공업화 과정에서 오는 개선 문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환경 개선이 外國에서의 도입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문제로만 국한된다는 것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國家정책 결정에 증점과 순서를 잊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계행 : 최차관님 말씀과는 조금 方向이 다릅니다. 工業化 문제를 제기할 경우 빈곤의 퇴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빈곤의 퇴치 보다는 소위 生活環境, 건강, 人命에 關係 되는 住宅, 공기오염, 농약의 被害에 依한 토지 오염等, 政策을 轉換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外國에서 도입하는 기술은 生産의 효율성만 생각하고 安定性, 人命에 關係되는 것을 度外視한 기술도 도입해야 하겠는가는 政策決定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각규 : 工業化 과정에서 오는 생활환경의 저해 요소는 잊어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판자 집에서 살면서 공기 나쁜 것을 탓해야 하고 움막집에 살면서도 生活環境을 탓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계행 : 政策目標을 반드시 所得의 增大, 工業化에 들 것이 아니라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몇 가지 基準을 定해 가지고 政策을 세우는 方向을 定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고 또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生活環境을 專擔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만 (外國에는 環境廳이나 省등이 있는데) 中央政府에서도 生活環境에 對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 政府의 政策이 轉換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영 : 崔次官님께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現在의 政策이 판자집을 뜯어 버리는데 도움이 되는 政策같이 보이지 않는데, 초점을 現在 것을 修正한다 하지 말고 total plan은 社會發展을 고려해서 농촌도 發展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경제학도가 아니라서 딱 순진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 원 : 꼭 진지한 討論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분께서도 高見을 말씀해 주셔서 結論이 빛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재희 : 黃先生님 말씀중에서 대기오염 이라는 것은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 中心의인 大氣汚染이지 오히려 全國의으로 볼때, 아주 局限해서 公害만 볼때 水質의 問題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를 集中的으로 努力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갑손 : 제가 分散이라고 한 것은 一般 都市에 工場이 들어와서는 안되고 工場地帶로 分散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종원 : 經濟發展 即 工場 建設과 生活環境은 이율배반적인 要素가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可能하면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서 最少限度로 公害를 줄일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하나 生活環境에 局限해서 말씀 드린다면, 잘살게 되면 좋은 生活환경을 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엔 priority가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생활환경도 고려해서 국가 경제발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영록 : 제가 마지막으로 제 나름 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企業인들이 다른 先進國 같이 莫大한 돈을 들여 장치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가 합니다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환경오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方法이 있으므로 이런면에서 政府에서도 政策을 세우고 企業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 원 :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人間의 歷史가 2000萬年이나 지나는 가운데 인류만이 우주에서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적응능력이 많은 까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를 다룰 때에도 人間의 적응능력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생각해야 할 것이며, 자연의 조절 능력을 초과해서 오염되었다든가 환경이 나쁘다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가 中心이되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대개 논의해 주신것을 整理 해보면 6~7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에 어떤 方向을 設定해 놓고 그 方向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하겠다는 말씀과 또 生活環境이라는 것은 모든것을 당장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정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一定한 基準을 設定해 가지고

그 기준의 limit를 지금부터 마련해 두고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상 필요하다는 것, 둘째로 經濟發展이라든가 인간의 生存 내지 번영을 위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長期的인 안목으로 priority를 결정하여 그 priority에 따라서 국가가 投資를 中心으로 하여 경제발전과 아울러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 셋째 경제발전과 생활환경개선 문제는 다 같이 重要的 문제인데 경제발전 문제는 이미 일반국민에게 고취되고 있으니 이제는 생활환경 문제를 아울러서 힘써 고취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 다음 문제는 생활환경 문제는 도시가 중요한 문제이나 농촌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所在해 있으므로 도시는 적극적인 태도로 방지를 해야겠고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게 좋은 정책이다. 그 다음에 가장 重要的 問題로서 生活環境을 다루는데 지금까지는 地方政府에서 다루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中央政府가 介入하여서 그 任務와 技能으로써 다루는 政策이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그외에 물문제, 공기오염 문제 등은 政府가 더욱 調查, 研究, 分析해서 政策的으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는 것이 여러 先生님들이 말씀해 주신 結論으로 要約 됩니다. 大體로 이와같은 광범위 하고 또한 全世界의으로 未確定된 문제를 지금 국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宣言 하겠거니 어떤 문제를 다루겠거니 할때 이자리에서도 정신적 物質的 여러 면으로 廣範하게 論議해 주신데 感謝를드립니다. 政府에서 이자리에 參席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 會議의 內容을 傳해 주시고 主體側이나 大學 研究室에서는 繼續的으로 研究하여 來年에 宣言될 人間 環境宣言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태도를 반영시키는 찬스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문제를 다룰 때의 문제라든가 자금 문제 등 우리의 태도를 整理해 두었다가 우리 國家 政策 樹立과 社會에 있어서 인식의 고취에 寄與한다면 오늘의 세미나가 커다란 열매를 맺는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